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 95-2호)

#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의대생 국시 응시 기회 부여에 대한 의견

2020. 09. 16.

담당자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운영책임

##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 조사실무

##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1

## 의대생 국시 응시 기회 부여에 대한 여론

### 의대생 국시 응시 기회 부여 반대 50%, 찬성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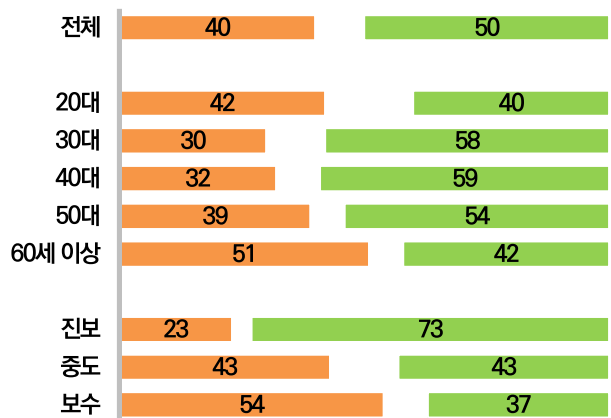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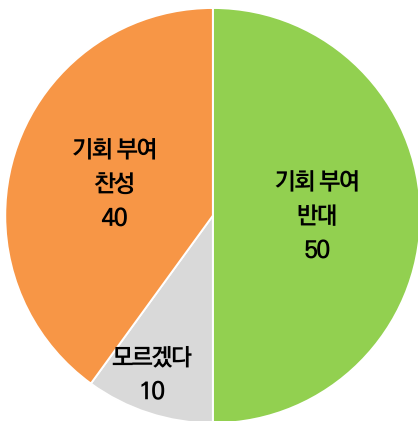
의료정책 추진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지난 9월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를 구성하고, 전공의와 전임의가 병원으로 속속 복귀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합의안 구성 이후에도 동맹휴업을 지속하고,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응시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의대생들이 지난 9월 13일 '의사 국가고시 거부'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시험 응시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대상자 3,172명 중 446명이 시험에 응시해 14%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9월 8일 치러진 국시 첫 날, 시험 응시생은 6명에 불과했다.

의대생들과 긴밀히 소통해 온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는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위배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내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정부는 의대생들의 응시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시험 응시 기회 부여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추가 시험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9월11일 ~ 14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0%가 의대생들이 입장을 바꿔 올해 국시를 보고자 해도, 시험 볼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시험 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시험 볼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30대(58%)와 40대(59%), 진보 성향 응답자(73%)에서 특히 높았고, 시험 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응답은 60세 이상(51%)과 보수 성향 응답자(54%)에서 높았다.

**의대생 국시 응시 기회 부여 반대 50%, 찬성 40%**  
30,40대와 진보성향 응답자는 기회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0세 이상과 보수성향 응답자는 기회 줘야 한다는 의견 높아

(단위 : %)



질문: 9월에 치른 의사국가시험(국시)에 접수를 하지 않거나 취소하여 올해 시험을 보지 못한 의대생들이 입장을 바꿔 올해 시험을 보고자 한다면, 시험 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본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0. 9.11 ~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년 8월 기준 약 54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6,596명, 조사참여 1,353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5.2%, 참여대비 73.9%)
조사일시	• 2020년 9월 11일 ~ 9월 14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 여輿論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